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하나 된 건축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지원센터
Tel 02)3415-6840
Fax 02)3415-6898
kira100@kira.or.kr

ISSN 2636-1078

2006년 9월 9일 창간 안내 (02)3416-6962~6 ancnews.kr 제392호 2023년 2월 22일

용산개발 민관 전문가 모임 '용산미래클럽'에 건축사협회 참여…'職住樂' 복합지역 조성 논의

국토교통부, 용산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상반기 중 마무리

최근 용산개발 정책 제안 민관전문가 모임인 '용산미래클럽'에서 용산공원과 주변 업무·상업지구와 연계하는 용산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 관계자가 2월 8일 '용산미래클럽'에 참여해 용산 활용 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용산미래클럽'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도시계획·건축학계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산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상반기 중 마무리되고, 연내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진다. 용산공원 종합계획에는 올해 초 발표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용산일대 교통망 개선, 생활권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 도입을 골자로 한다.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한국형 화이트존) 도입과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이 추진된다.

또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역시 도입된다.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해준다.

정부는 용산이 뉴욕 보스톤 혁신지구, 센트럴파크 등이 합쳐진 미래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때문에 용산 개발과정에서 용산공원은 물론 주거와 문화, 업무가 복합되는 융합적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용산일대를 어떻게 조성·개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품격,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만큼 용산공원 전체~삼각지역 3거리를 포함한 마스터플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전문가단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산개발 정책 제안 민관 전문가 모임인 '용산미래클럽'이 2월 8일 모임을 가졌다. 석정훈 본협회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과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앞줄 왼쪽 2번째) 등 참석자들이 용산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매일경제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계획 혁신방안 관련해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의 제안을 폭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VIEW 시장실패와 공공재 측면의 건축

시장실패가 분명할 정도의 가격우위 시장에서 '설계품질 확보, 서비스 제공' 어려워…'민간대가 기준' 부활, 시장 불균형 해소해야

민간발주사업, 건축물 품질 저하와 설계인력 확보 곤란 등 전형적인 시장실패 모습 보여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건축 설계비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훨씬 못 미쳐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과 제도적 보호 장치 있어야…건축사협회 "공공재 성격 강한 산업별 특성 세심히 살피고, 개별법 입법취지 등 깊이 있는 통찰 필요"

지난 2월 10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한국건축규정 공고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7개 △의제처리 법령 29개 △심의·인증 및 평가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은 무려 237개에 달한다. 현행보다 확인해야 할 법령이 6개 늘었다.

실제 건축물 하나를 지으려면 심의 또는 인증 절차만 많게는 40여개를 받아야 하는 게 국내 현실이다.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201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건축(관공서) 32건, 초고층 주상복합은 종합 36건의 심의·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축

건축사업(建築士業) 규제, 각종 부당행위 제보 바랍니다

건축사업(建築士業) 관련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 업무 수행 때 부딪히는 불합리한 법규나 관행·규정, 건축 설계공모 관련 비리, 자격대여 등 부당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은 기획 시리즈로 엮어 보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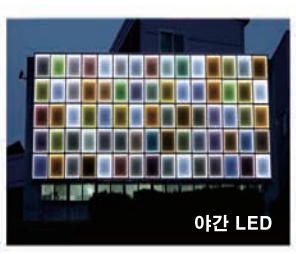
(02)3416-6962~6 news@kira.or.kr

alpha ENERWORKS "국내 최대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전문제조업체" (주)알파에너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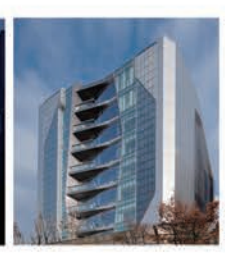
"컬러 BIPV" 건축물의 가치를 더하다
효율 + 품질 + 디자인을 모두 만족하는 BIPV

BIPV 맞춤설계 지원을 통해 최적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문의 : 031-275-9575 / www.alphaenerworks.com
설계지원 접수 : 010-9484-8427 / hmlee@alphaenerworks.co.kr



대전 A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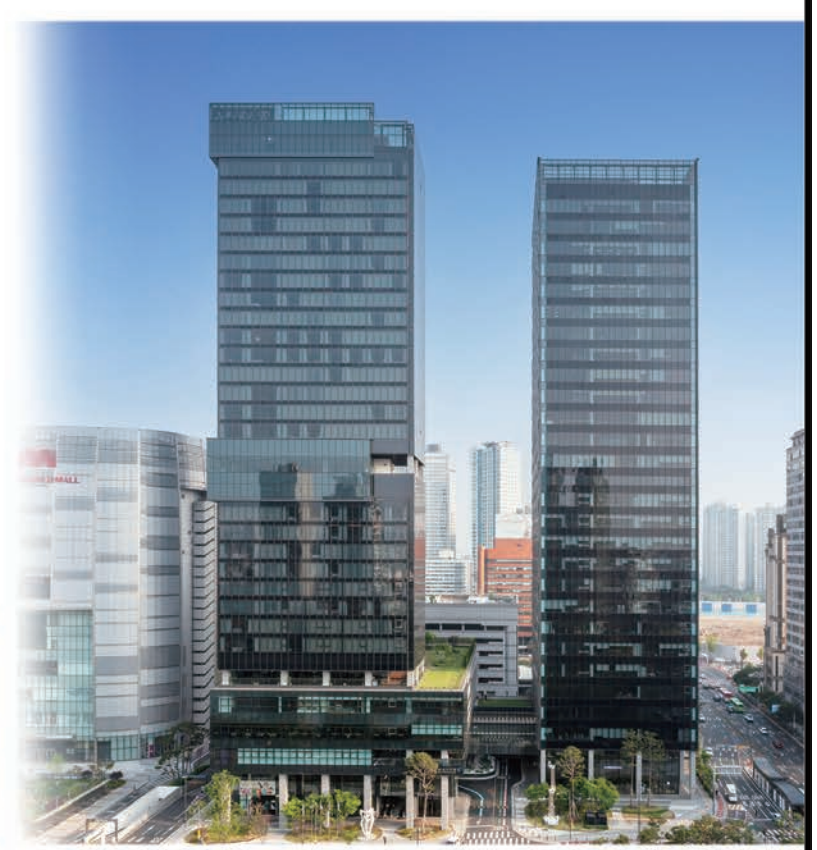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신사동 멀버리힐스

강남뉴욕제과 재건축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KT송파타워

사 설

건강한 건축 생태계 조성해 상생의 선순환 이뤄야

건축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건축인이라면 대부분 건축계의 힘없음을 한탄하는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 각종 규제와 법과 심의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그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물가 대비 20년 전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상한율을 정하고 공시된 요율대로 받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 건축사들은 하한가인 요율대로 설계비를 받지 못하는 것조차 당연시하는 이상한 건축환경에서 각자도생하며 한탄만 하고 있다. 낮은 대우는 질 낮은 설계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업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고 그런 건축물로 창의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은 먼산이 된다. 우리 스스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보지 못하였으니, 다른 건축사를 이겨야만 일을 수주하는 제로섬 게임의 법칙만 존재하는 듯하다. 설계공모에서 온갖 뒷거래와 로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듯 얘기하며 그것 또한 능력이라 믿고, 사전접촉 금지에 서명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심사위원과 접촉한다. 꿈을 안고 졸업한 신입건축인들은 이런 현실을 듣고 고민하다가 건축계를 떠나거나 혹은 더 탁월한 로비스트가 된다. 건축계는 아직도 무법의 춘추전국시대다.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부정직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건강한 건축 생태계가 우리 모든 건축사들을 구원한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가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패배감에서 벗어나 함께 건강한 건축 생태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다음 세대는 실력 있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일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건축사의 위상을 소리 높이지 않아도 창의적이고 건강한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건축사로 존중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건강한 건축 생태계를 위한 첫 걸음은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작은 불합리함이라도 게시판에 올리고 협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구청이나 민간에서 일어나는 한 명의 건축사에게 일어나는 억울함은 어쩌면 당연시된 불합리함이고 묵은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협회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보다는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협회로 만들어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역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작동하는 협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건축사의 위상을 지켜내야 한다. 무엇보다 윤리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직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설계공모 로비 문제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물론 건축사 스스로도 심사위원인 건축사들이나 대학 교수들을 못 믿게 된 것이 현실이다. 각자의 양심은 너무 나약하기에, 협회를 통한 감시와 제재 혹은 자격정지라는 강한 칼을 꺼내서라도 정직한 건축계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부정직함이 일상인 건축사의 권위는 우리가 스스로 칼을 들지 않으면 결코 회복할 수 없다. 정직과 성실로 당당하게 경쟁하는 건강한 공모 문화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실력 있는 건축사로 정당한 대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들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들은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성장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건축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기를 꿈꾼다.

시 론

삶 속에 싹트는 생명력 있는 건축을 위해

박미은 건축사
희담 건축사사무소

어느덧 50대에 진입한 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지난날을 돌아보게 된다. 학교 졸업 후 실무 15년, 둘째 출산 후 짧은 전업주부 생활, 그리고 다시 하게 된 일과 얼마 후의 개업…. 그리고 벌써 몇 년이 흘렀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설계업무를 하고 대규모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비도시 지역에서 1인 건축사사무소로 독립을 하면서 녹록지 않은 여러 일들을 겪었다. 관리 지역에서의 처음 겪어보는 인허가 기준(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소규모 주민 밀착형 업무(?)에 문뜩문뜩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를 떠올리곤 했다.

근래에, 입찰 시도 후 처음으로 낙찰을 받아 교육시설 리모델링 설계를 접하며 공사비·업무량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설계비 요율에 좌절을 한 일이 있다. 리모델링 설계는 일반설계 업무와 달리 현황 실측 업무가 수반되므로 설계 요율(1.5배)이 더 높아야 마땅한데 교육시설은 아직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담당자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으나, 그래도 평소 다른 엄마만큼 아이한테 다 해주지 못하는 나름의 죄책감과, 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이라는 나름의 책임감으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많은 걸 얻은 작업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개업 초창기의 감리현장은 현장시공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본인에게는 (현장에 나름 진심인) 다른 업역의 사람들을 설득 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 현장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작업한 철근배근에 최소한의 산뜻한 수정 방안을 전해 줄 수 없는 구조 지식의 한계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집이 준공되고 마무리되는 데에 뿌듯함과 아쉬움이 있었다.

처음 건축사사무소 이름을 정할 때 아이들 이름의 한자인 "희"를 따서 "희망을 담는다"는 의미로 지었는데, 나는 지금 현재 거기에 부합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실은 잊고 살 때가 더 많은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 의미를 떠올리며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사투리와 지역에 몇 없는 여성건축사라는 (소심한) 마음에 가끔은 욱하는 성격을 참기도 하고 행동에도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낯선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며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다 생각한다.

지금의 나이와 내가 처한 상황, 세월을 핑계로 늘 하고 싶은 일에 목마름을 가져 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함에 자책도 하면서, 주어진 운명에 물 흐르는 데로 살아오다 보니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됐다. 50의 나이에도 아직 방황하며, 좋은 건축을 위해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반문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좋은 건축을 만드는 일은 건축사의 몫이고 소명일 것이다.

끝으로,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원하고 바라는 희망들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라본다.

좋은 건축을 만드는 일이

우리 건축사의 몫

소명감 잊지 않으려 노력

회원 모두 바라는 희망들

각자의 자리에서

꽃피울 수 있기를

▶1면에서 계속

▶ 국내 설계비와 해외 설계단계 대가 비교(공사비 약 100억 공공업무시설 기준, 2020년)

구분	설계비요율(공사비대비)	설계대가			비고
		합계(100%)	설계단계(%)	공사단계(%)	
독일	9.15%	915,000천원 (100%)	475,800천원 (52%)	420,900천원 (46%)	사후관리 18,300천원(2%)
프랑스	9.00%	900,000천원 (100%)	468,000천원 (52%)	432,000천원 (48%)	
미국	8.28%	828,000천원 (100%)	579,600천원 (70%)	248,400천원 (30%)	
대한민국	4.14%	414,000천원 (100%)	414,000천원 (100%)	-	2종, 중급기준

자료=서울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현장의 건축사들은 수도 없는 심의와 규제, 제한이 들어오다 보니 "건축을 하는 건지, 행정을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고 토로한다.

현재 민간발주사업의 경우 최저가 낙찰 관행에 따라 덤핑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건축물의 품질 저하와 설계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지경까지 내몰려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건축시장 81%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설계비는 공공 대비 20%(세움터 통계자료 〈2015~2019년〉)에 불과해 절대적인 건축주와 가격우위 시장에서 제대로 된 설계품질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국내 건축시장은 저가경쟁으로 인한 기본적인 건축 설계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공재적 성격 탓에 각종 규제와 해야 할 일은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메커니즘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와 비교하더라도 국내 건축 설계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축 설계비는 해외 설계단계 대가의 약 70~80%에 그치며,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설계(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서 공사단계(설계의도 구현)까지 확대할 경우 해외 대비 절반 이하인 45~5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국내 설계비는 해외 설계단계 대가의 약 70%~80% 수준 공사단계(설계의도 구현)로 확대할 경우 국내 설계비는 45%~50%

과거 시장경제 경쟁정책이 강조된 데 따른 부작용(시장실패)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일부 행해지기도 했다. 부실설계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우려 등 모든 문제는 낮은 업무대가에서 시작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17년 '공공대가기준 의무화' 건축사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당시 국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공공대가기준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대가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하거나 업무 수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이어져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 건축설계·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공대가기준이 민간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실패가 분명할 정도로 열악한 건축시장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 "설계 민간대가 기준을 다시 만들어 제정하는 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현장의 건축사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공공재, 자연독점,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시장실패가 그것인데, 공정거래법에서도 시장경제에서 경쟁 원리에만 의존할 경우 오히려 경제의 자연스러운 순환고리를 경색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예상되거나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산업분야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유보 또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 정책 소관 부처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규제의 우선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쟁 정책과 산업 정책의 조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산업분야의 시장실패(왜곡)에 대응하고 불균형 축소에 나서는 것은 시장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과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경쟁 주창 활동이나 법령의 해석과 적용 역시 법치주의 기본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정거래법 적용의 제외 역시 공정거래법의 시각과 잣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법체계와 조화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공공재로서의 산업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개별법의 입법취지, 해당 산업 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호 기자

FOCUS 튀르키예 대지진과 건축물 안전, 그리고 건축사의 역할

튀르키예 대지진, 부실·불법건축으로 피해 키워…'국내 건축물 품질 확인' 도입해 건축안전 반면교사 삼아야

10만5,794채의 건물 파괴, 인명피해도 4만 명 넘어서

최근 부실시공 책임, 튀르키예 내 건설업자 100명 체포

건축물 거래 시 노후도, 실내마감상태, 위법여부 등 건축사가 확인해

국민·소비자 '건축물 정보'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하테이 주 지진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

2월 6일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2월 19일(현지시간) 까지 6,000번이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 사망자만 4만 명, 유누스 세제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 국장은 이날까지 튀르키예에서만 총 4만689명이 지진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도 크다. 튀르키예 정부에 따르면 10만5,794개의 건물이 파괴됐거나 해체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다. 이들 중 2만662개는 완전히 붕괴됐다. 붕괴 건물 중 대부분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점이 인명피해가 확산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튀르키예 정부 역시 주거용 건물 붕괴의 원인이 된 불법·부실공사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튀르키예 법무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 주 당국에 '지진 범죄 수사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불법 및 부실공사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최근 지진 피해 지역 10개 주에서 건설업자 100여 명이 부실공사 혐의로 체포됐다.

지진으로 10만5,794채 건물 파괴 불법·부실공사 건설업체 100명 체포 반면교사 삼아 국내 건축물 품질과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품질 확인제 도입 필요성

불법 건축으로 피해가 확대된 튀르키예 지진을 반면교사 삼아 국내에서도 건축물의 소유자나 건물관리자가 건축물의 품질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건축물 품질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축물의 생성부터 멸실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안전에 책임을 지는 건축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건축물 거래 시 건축물의 상태와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언이다. 불법 건축 유무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정보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는 건축사가 유일하다.

서울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 건축사는 "국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 이를테면 각종 설비 노후도라든가 실내마감상태, 위법여부 등 건축사가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건축물 거래시 첨부케 한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준공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지진에 앞서 튀르키예는 1만7,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대지진이 1999년 있었는데, 이때 내진을 포함한 건축규제를 강화했으며, 2018년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쓰고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설업자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저급 콘크리트와 철근을 사용해 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반면, 불법 건축을 줄여 같은 지진으로부터 단 한명의 사망자도,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은 지역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튀르키예 하타이주 북쪽에 있는 인구 4만2,000명의 도시 에르진이다. 가장 피해가 큰 하타이주에 속한 에르진은 시 당국이 불법 건축을 강력하게 단속해 피해를 막은 것으로 분석됐다. 터키 지역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외케슈 엘마솔루 에르진 시장은 그동안 불법건축물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고강도 건축규제 덕분에 지진으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 심지어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도 "선진국에서는 주택 매매과정에서 주택의 내구성이라든가, 설비 노후도, 주택의 위법성 등을 알 수 있게 별도의 서류가 첨부되고 있다"며 "국민들, 소비자들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희망자 모집…재학생·졸업자·건축사사무소 재직자(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건축사·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 건축사보) 참여 가능

국토부, 세계적인 건축사 꿈꾸는 청년 건축인 해외 연수 지원

1인당 최대 3천만 원…3월 6일부터 접수, 4월 중 합격자 발표

▶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가 자격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선정 후 6개월 이내 연수기관 및 일정 등 확정하여 연수시작 – 연수 희망기관(5곳 이내)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재학생 전형	– 신청대상 :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은 졸업자 전형으로 신청
졸업자 전형	– 신청대상 :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인 미취업자)
재직자 전형	– 신청대상 : 건축설계 관련 분야 재직자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건축설계 분야가 가진 공공성과 창의성, 문화적 가치가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며, 건축설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우수한 건축설계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우수한 건축설계인력이 세계적인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 모집 공고를 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이며, 접수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사업에 참가하려는 희망자는 현재 본인의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다. 석·박사 과정 재학생과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인 미취업자는 졸업자 전형으로,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중 건축설계 관련 분야 재직자는 재직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시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학위, 자격, 어학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누리집(http://archi-training.kr)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면접 평가로 진행된다. 서류합격을 통과한 예비합격자는 4월 12일, 이후 면접평가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 35명은 4월 중 개별통보하게 된다.

연수기간은 최단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 지원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을 통해 100명 이상의 청년 건축인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가졌으며, 미국과 독일,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박관희 기자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자격대여·건축사법 위반 여부 등 신고사항 협의

신고사항 면밀한 검토 후 조사위원회 이첩 등 후속 조치

2월 13일, 2023년 제1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건축사 업무와 자격, 허가권자·발주처 관련 부조리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부조리신고센터가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고 사항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2월 13일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누리집 개편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논의해야 할 안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15건의 신고 사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으며 안건별로는 ▲설계공모 ▲자격대여 ▲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건축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자격대여와 관련된 신고접수 건은 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격대여 해당 여부가 주된 내용이다.

협회 건축법제국은 "최근 조사위원회에 이첩돼 후속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피제보자가 특정되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담긴 제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위원회 조사 등 후속조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때 타 위원회와 중복·상반되는 사안 배제 가능해져…2월 1일부로 즉시 시행

인허가 부당 지연 방지 목적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은 위원장이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고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1일 고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교통·건축 등의 여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이나 중복된 의견이 제시되어 인허가 기간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장영호 기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9.2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도록 한다.	9.2 ---------- 지양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준비된 감사!!

대내외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금의 시기 조합에는 감사후보자가 무엇보다 경험적 가치,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통한 조합운영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감사란 집행부가 조합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오로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부분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역할이자 본분입니다. 감사의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최상의 상태로 조합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적 위기사항을 타개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집행부가 조합을 운영한다면 **집행부가 하는 일이 따로 없고 감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을 수 없듯이 저 자신 이를 위해 집행부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조합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사공제조합과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감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사공제조합 감사후보
이 영 호 2

건축사공제조합 CERTIFIED ARCHITECTS FINANCIAL COOPERATIVE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친환경 환경부 환경 마크 획득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우수건축자재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FOCUS 설계의도 구현 제도 일선 운영 실태

공공 70억 공사 건에 설계의도 구현비가 고작 550만 원 기본적 설계비도 터무니없지만 이를 가중시키는 '설계시장 메커니즘' 개선돼야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되는지 신경 쓰는 건축사일수록 경제면에서 마이너스

건축물 설계자, 적정대가 반영 안 돼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

'설계의도 구현' 대가 없이 사용승인 때까지 하게 하는 불공정 관행도 비일비재

실제 설계업무 끝나고 "시공 때 설계자가 하는 일 추적해 볼 필요"

▶ 설계의도 구현과 공사감리의 정의

구 분	설계의도 구현	감리
정 의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관련)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 건축 설계공모(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	차. 특정인의 기술 · 품질이나 경험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 · 설계 · 감리 · 특수측량 · 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자. 특정인의 기술 · 품질이나 경험 · 자격이 필요한 조사 · 설계 · 감리 · 특수측량 · 훈련 · 시설관리 · 교육 · 행사 · 정보이용 ·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울시가 2020년 6월 17일 발표한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시행' 방침에 따라 △대가기준 △업무범위 △공사 중 설계자의 참여 보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돼 실시 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설계의도 구현 계약 시 예산 문제를 이유로 소액 수의계약(2천만 원 이하) 법(지방계약법) 조항을 근거로 헐값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설계자가 실시설계 이후 무상으로 서비스(설계의도 구현)를 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 이를테면, 지방의 ○○시의 경우 공공건축 70억 공사 건에 건당 실비 50만 원을 책정하고 설계의도 구현 대가로 고작 55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건축사들은 기본적인 건축 설계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도 모자라 설계가 끝나고 시공때까지 이어지는 업무, 즉 설계의도 구현업무(사후설계관리업무)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적정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되는지 신경 쓰는 건축사일수록 경제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 활성화를 논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설계자의 초기 설계의도가 합리적으로 구현되도록 △적정 대가기준 마련 △취지에 적합한 표준업무(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가운데, 건축사들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A 건축사는 "설계가 끝나고 시공 측에서 잘못해도 계속 디자인변경에 팔로우업을 해야만 한다"며 "만약 시공사라도 잘못 만나면 상주감리 이상으로 그 프로젝트에 한 명이 끝날 때까지 붙어있어야 하지만, 정작 대가는 부재한 형편이다. 본 설계자는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되는지 신경 쓸수록 마이너스다"고 토로했다.

B 건축사도 "설계한 모든 건축물이 애착이 가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설계의도 구현비를 받고 나중 허점을 지적하며 디자인이 어쨌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비용을 제대로 받고 일하거나, 성과를 만들려면 적정 비용을 지불토록 해야 하는 게 먼저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와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상 공사감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자가 설계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로서 엄연히 감리와는 다를뿐더러 별도 업무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공사감리는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 '설계의도 구현'이 건축디자인에 적합한 품격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현장지도' 개념이라면, 공사감리는 기술적 적합성과 성능·안전 등 품질 구현을 위한 'Inspect', 즉 감독 성격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법에 설계의도 구현은 건축사의 설계업무 중 '사후설계관리업무' 용어로 규정돼 있다.

설계자(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시기는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 이상 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허가권자 지정 감리 시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다. 대가 산정기준은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대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지급방법이 부재해 발주기관에서 일관된 예산안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일선 공무원들도 있다 보니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현행법상 설계비 1억 원 이상 설계는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디자인 공모(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설계의도 구현은 공사단계에서 당선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설계업무의 연장으로, 수행 업무에 따른 별도 과업이자 추가업무로 봐야 한다. 때문에 2천만 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

예컨대, 설계공모에 당선됐을 때 설계의도 구현비를 두고 일선 지자체에서 2천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관계 법령상 '디자인 공모 수의계약'을 근거로 한다면 금액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최근 종로구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이 그러한 사례다. 해당 프로젝트 설계자 C 건축사는 설계의도 구현비 계약 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최초 2천만 원이하 소액수의계약 체결을 요구받았으나 협의 끝에 디자인 공모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받아 요율대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최근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며 국가·지자체의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역시 기존 대비 2배로 상향됐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약법은 2021년 7월 6일, 지방계약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등 용역·물품의 경우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장영호 기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입법예고…①심사위원 명단 공개, 설계비 10억 이상의 경우 공모안 제출마감일 가능 ②심사 총량제 도입(심사참여 횟수 월 2회 이하로 제한)

유튜브, Zoom 등 영상 플랫폼 또는 화상회의 활용해 모든 심사과정 실시간 공개 의무화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의무화	o 설계비 10억 원 이상에 한하여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과 공개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심사 총량제	신 설	o 심사위원별 설계공모 심사참여 횟수를 심사일 기준 월 2회 이하로 제한
실시간 공개		o 유튜브, Zoom 등 영상 플랫폼 또는 화상회의를 활용해 모든 심사과정을 실시간 공개 의무화
불공정행위 금지		o 심사위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대상임을 안내
제척·기피·회피 기준 확대		o 제척 기준에 '그 밖에 위원회 심사 대상 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설계공모 정의 및 계약 관련 근거 명확화	-	'건축 설계공모'는 디자인 공모로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함

불공정행위 우려가 큰 설계비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설계공모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심사위원 명단 공개시점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할 수 있게 하고, 심사위원별 설계공모 심사참여 횟수를 월 2회 이하(심사일 기준)로 제한하는 '심사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이 2월 14일 입법예고됐다.

그간 공정한 건축 설계공모 정착·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국회, 조달청, 지자체, LH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된 가운데, 작년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강대식 의원)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시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며 로비가 성행해 그 취지가 상실됐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설계비 10억 이상 설계공모의 경우,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공모 공고 시점이 아닌 공모안(설계도서) 제출 마감일에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영호 기자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안)>

▼ 심사위원 명단 공개(현행, 원칙 유지) ▼ (개정안) 일부 허용

설계공모 공고 | 등록시작 | 등록마감 | 설계도서 제출시작 | 제출마감 | 심사일 | 심사발표

7일 이상 | (통상 1주일 소요)

90일 이상(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최소 45일 이상) | (통상 1주일 소요)

건축 질의회신 Talk

대피공간의 면적의 거실 면적 산입 여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2조	-	23.2.2

질의 요지	오피스텔의 6층 이상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거실"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거실의 사용목적으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등의 개념 또는 사용목적별 구체적인 기준 등 거실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통상적인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 따른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사용자가 일정 시간 연속적으로 머물며 주거, 사무, 근무, 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대피공간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시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용도는 같은 호에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복층형 오피스텔(업무시설) 층간 방화구획 설치 기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22.4.13

질의 요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복층형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층간방화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은 제1항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제8호는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복층형 오피스텔은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21.12.1

질의 요지	각각의 층수가 다른 여러 개의 동(棟)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 전체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후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려면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에서 10분의 1의 범위를 넘지 않는 변경이어야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후 그 건축물 규모의 변경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변경이 발생한 해당 동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17.3.31

질의 요지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1층 중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1층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LH 설계공모 시작…2월 23일 안양매곡·남양주 양정·안산장상 건축 설계공모 진행

서울시, 3호선 수서차량기지·The-K호텔 부지·한옥마을 조성 등 도시건축 계획 잇달아 발표

제2세종문화회관·성동구치소·수서역 공영주차장도 '도시 건축 혁신 시범사업'으로 상반기 공모 예정

▶ LH설계 공모

사업명	추정 공사비	규모 (세대수)	사업면적	공고(발주) 예정일
안양매곡 A-1BL 공동주택	12억 원 내외	377호	10,912㎡	공고 : 2월 23일 / 접수 : 4월 10일 심사 : 4월 18일 / 설계완료 : 5월 사업승인 신청 : 6월
남양주 양정 역세권 S-1BL 공동주택	34억 원 내외	1,475호	55,547㎡	공고 : 2월 23일 / 접수 : 4월 10일 심사 : 4월 19일 / 설계완료 : 5월 사업승인 신청 : 6월
안산장상 A-4BL 공동주택 설계공모	33억 원 내외	1,433호	44,094㎡	공고 : 2월 23일 / 접수 : 4월 10일 심사 : 4월 18일 / 설계완료 : 5월 사업승인 신청 : 6월

▶ 서울시 도시건축 계획안

사업명	내용	진행 계획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	2월 중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공모 예정. 2028년 5월 완공 예정
3호선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강남구 자곡동 위치한 3호선 수서차량기지 면적 204,280㎡의 입체복합 개발추진	유연한 복합 구성을 허용 계획.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한 서울시는 세부적인 도입 기능, 개발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수립을 추진 예정
THE-K 호텔 부지 개발	양재 AI R&D 혁신지구 내 위치 The-K 호텔 부지 98,820.8㎡ 개발	2월 13일 사전협상 본격 추진. 2025년 공사 착공 예정
서울 한옥4.0 재창조계획	한옥에 대한 종합 계획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	SH공사 등을 통해 공영 개발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서울시 곳곳에 10곳의 한옥마을을 조성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1월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건축 설계공모 일정을 발표했다.

2월 23일 공고가 시작되는 안양매곡 A-1BL 공동주택은 추정 설계비 약 12억 원 내외로, 사업면적 10,912㎡, 377호 세대 규모다. 2023년 신규 사업승인 조기 추진지구로 지정된 만큼 금년도 6월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공고는 2월 23일, 작품 접수는 4월 10일까지다.

같은 날 남양주 양정 역세권 S-1BL 공동주택과 안산장상 A-4BL 공동주택 설계공모도 진행된다.

남양주 양정 역세권 S-1BL 공동주택은 추정 설계비 약 34억 원 내외로, 사업면적 55,547㎡, 1,475호 세대 규모다. 용적률 190%, 최고 층수 25층이다. 22년 신규 사업승인 예정 지구이며, 공고는 2월 23일, 작품 접수는 4월 10일까지다.

안산장상 A-4BL 공동주택 설계공모 추정 설계비 약 33억 원 내외로, 사업면적 44,094㎡, 1,433호 세대 규모다. 용적률은 195%, 25층 이하다. 23년 신규 사업승인 조기 추진지구인 만큼 6월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공고는 2월 23일, 4월 10일까지 접수를 한다.

서울시도 도시 건축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9일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노들섬을 시작으로 제2세종 문화회관, 성동 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으로 민간 분야에 대한 '도시 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3일에는 3호선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 개발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수서차량기지는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했으며 면적은 204,280㎡다. 서울시는 수서 일대가 지역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과 지원 기능 확충에 필요한 지역인 만큼 유연한 복합 구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한 서울시는 세부적인 도입 기능, 개발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양재 AI R&D 혁신지구 내 위치한 The-K 호텔 부지 98,820.8㎡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 논의를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사전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5년 공사를 착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개발 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한옥에 대한 종합 계획도 지난 2월 14일 발표됐다. 서울시는 「서울 한옥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자유롭게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심의기준을 개편한다. 기존에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 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한다. 33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키로 했다. '한식 목구조'와 '기타 구조' 결합이 가능해지며, 상업지역의 경우, 처마길이 기준도 90cm에서 60cm로 유연해진다.

더불어 SH 등을 통해 공영 개발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서울시 곳곳에 10곳의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 등의 건축물도 건립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아라 기자

해외건축 NOW - FRAMEWORK FOR DESIGN EXCEL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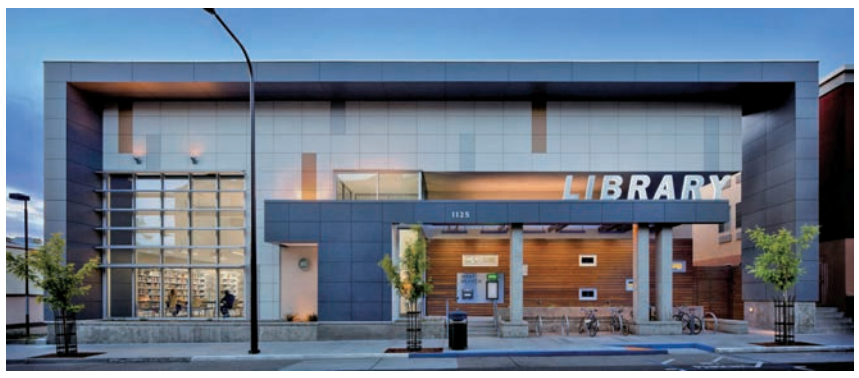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위한 'AIA 설계 프레임워크'

건축사는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대외적 상황 속에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이 건축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달라진 환경 변화에 미국건축사협회(AIA)는 '탁월한 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건축사들과 열 가지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건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건축사신문도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며 확장된 시각을 나눠보려 한다.

첫 번째로 '통합을 위한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다룬다.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균형 있게 설계에 담고, 각각의 원칙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인 설계를 위한 질문을 정리해봤다.



WEST BRANCH OF THE BERKELEY PUBLIC LIBRARY IN BERKELEY, CALIF. BY HARLEY ELLIS DEVEREAUX, A 2016 COTE TOP TEN AWARD RECIPIENT.
사진=David Wakely, courtesy of Berkeley Public Library

프로젝트의 개념과 목적은 무엇인가?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보존할 만큼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인가?

설계 전략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가?

① 통합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Integration)

건축물의 미적 아름다움과 기능의 실용성을 균형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하다. 통합을 위한 설계는 각각의 질문을 통해 떠오른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한다.

AIA는 통합적인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진다. ▲프로젝트의 개념과 목적이 무엇이며, 이 프로젝트 고유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구성원과 장소를 연결시킬 수 있을지 ▲사람들이 보존할 만큼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인지 ▲어떤 설계 전략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지 등이다.

AIA는 통합적인 설계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HED(Harley Ellis Devereaux)에서 설계한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버클리 공립 도서관 서관을 꼽는다. 건축물이 사용자의 감각을 고양시키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한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했다고 본 것이다.

버클리 시가 버클리 공공 도서관 서관에 기대하는 바는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허브로의 역할 강화였다. 그동안 이 도서관은 미국에 막 도착한 사람들을 위한 ELS 수업을 운영하는 등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런 만큼 새로운 도서관이 다양한 연령대와 라틴계·인도계·아프리카계·아시아계 미국인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또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3%, 2050년까지 50%를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제로(zero net energy) 건축을 요구했다. 소외된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HED는 광범위한 평가와 건축사 주도의 지역사회 워크숍을 통해 도서관 신축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기존 버클리 공공 도서관 서관 부지에는 192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단층 도서관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도서관이 지향하는 커뮤니티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HED는 기존 도서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건물을 다시 짓는 쪽이 새로운 이용자를 더욱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것이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인 '다양한 문화의 교류'로 나아가는 방향이라 본 것이다.

도서관은 목재의 따듯한 감각에 빛이 더해져 누구나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입구 정면의 넓은 유리창을 통해 열람실 내부를 보여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게 유도했다. 캘리포니아의 풍부한 채광이 도서관의 메인 공간인 서비스 데스크까지 이어져 따뜻함과 활기찬 감각을 전한다. 또한, 건축물과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독서 공간을 늘려서 설계했다. 어린이와 10대를 위한 개별 전용 공간과 회의실도 넉넉하게 구성해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했다.

HED는 도서관과 사용자 사이의 감각적 연결에도 중점을 뒀다. 벽의 색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건축 재료, 바닥을 걷는 소리 등을 통해 사용자가 건물과 공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을 담은 설계로 도서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공간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감각의 중요성은 이미 다수의 저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안드레아 립스(Andrea Lipps)와 엘렌 럽톤(Ellen Lupton)도 "사람들은 시각뿐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인식한다.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처럼 진동을 느끼고 움직임을 보면서 소리를 경험한다"고 공저에서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에너지 제로(zero net energy)를 달성했다. HED는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지붕 구성과 건물 높이를 고민해 채광과 환기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 했다. 가능한 한 많은 자연광을 확보하기 위해 천장의 채광창 슬롯을 설치했다. 빛을 반사하는 천장 패널이 들어오는 빛의 반사와 확산 효과를 증폭시켜 공간 전체에 빛이 스며들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구조로 약 97%의 자연 채광을 확보해 조명 부하를 줄였다. 자연 환기와 풍부한 채광으로 정전 발생 시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이 있는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는 복합 상업 지역으로 극심한 교통 소음이 유발되는 곳이었다. 창문을 여는 게 어려운 만큼 자연 환기와 태양열 접근을 활용해 효율적인 에너지 구조를 설계했다. 이 도서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인증된 리빙 빌딩 챌린지(Living Building Challenge) 인증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설계의 과제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찾는 데에서 시작된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주제를 풀어내기 위해 AIA는 통합을 위한 설계 외에도 아홉 가지 프레임워크의 조화를 강조한다. AIA가 제시하는 열 가지 프레임은 큰 틀에서 사람을 위한 디자인, 자연 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디자인을 아우르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평등한 커뮤니티를 위한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다룬다.

조아라 기자

경기도 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안 발표…설계공모 불공정 행위 적발 시 5년간 참가 제한, 심사위원 인력풀 450명 이상으로 확대

참가자 저작권 명시, 적정 보상비 보장…2월 7일 자 공모부터 운영 개선안 적용

경기도 교육청이 2023년 시설 사업 설계공모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설계공모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시설 관련자로 조정·확대(경기도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6급〈건축〉까지 포함)했다.

공모 참가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공모안의 저작권은 공모참가자에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도 완화됐다.

이외에도 ▲심사위원 녹화본 30일 보관 후 파기(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입면계획, 동영상 컬러 사용 등 제안 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 기준 명확화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또한 공모 심사위원 인력 풀을 조정해 4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의 설계공모 개선안은 지난 2월 7일 자 공고부터 적용된다.

조아라 기자

수상 그 후 ⑯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물부문 우수상 '맘껏놀이터'

엄마, 아빠가 물장구치던 야외수영장 터에 만들어진 놀이 공간
최정인 건축사 "틈과 프레임으로 큰 놀이 공간 재창조"
놀이기구 없이도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완성

국내 건축 문화를 이끌 다채로운 건축물들을 선정했던 한국건축문화대상, 해마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기마다 건축문화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열여섯 번째 작품은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물부문 우수상 수상작 '맘껏놀이터'다.

맘껏 놀이터 전경 사진=노경

서울이지만 아직 공터가 많은 지역에서 자랐다. 지금은 뉴타운으로 개발된 곳이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동네가 모두 놀이터였다. 학교가 파하면 집에 가방만 던지고 나와 맘껏 놀았다.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어도 별 상관이 없었다. 술래잡기, 다방구에 딱지치기까지 하고 구멍가게에서 하드 하나씩 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1980년대의 어린이는 그래서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미안하다. 지금은 동네마다 놀이터가 없지는 않지만 '맘껏'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 몇십 년 동네 풍경은 갈수록 화려해졌지만,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2023년의 아이들은, 한바탕 뛰어논 뒤 저녁 바람에 땀을 식히는 여유를 알기가 쉽지 않다.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물부문 우수상 수상작 '맘껏놀이터'(최정인 건축사, 일상건축사사무소)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전라북도 전주시를 대표하는 덕진공원에 들어선 '맘껏놀이터'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건축사는 아이들에게 놀이기구 없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던 그 시절의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 이 공간을 설계했다.

이곳은 한 세대 전 야외수영장이 있던 공간이어서, 근처에 사는 지금의 부모 세대에게는 또래들과 함께 물장구치던 기억이 생생한 곳이다. 20여 년 전 이 수영장이 없어진 뒤 빈 공간으로 방치되던 이곳에 이들의 아이들이 뛰놀게 되면서 같은 공간에서 부모와 자녀의 기억이 이어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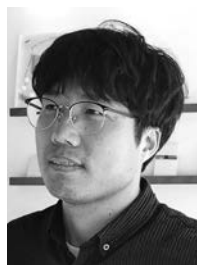
최정인 건축사는 "프로젝트를 대하면서 건축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놀이터, 공원, 조경이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렇기에 맘껏하우스는 하나의 건물이 아닌 그냥 큰 놀이공간 정도로 인식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최 건축사는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장치로 '틈과 프레임'을 활용했다. 실내공간은 최소화하며 외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이 외부공간에는 이동의 목적이나 잠시 머무르는 공간의 함의를 갖는 '틈'을 신경 써 설계했다. 또한 프레임은 단순히 건축물 형태를 규정짓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는다. 뛰다 지친 아이들에게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안전을 지키는 난간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각종 놀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지대가 되기도 한다.

'맘껏하우스'를 설계한 최정인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최정인 건축사(일상 건축사사무소)와의 일문일답



최정인 건축사

Q 이 건축물을 설계하시게 된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뒀던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0년대까지 야외수영장으로 이용됐지만, 수영장이 없어지고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이곳에 아이들이 모여 놀 공간이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놀이의 기억이 있는 장소에 다시금 놀이의 행동이 쌓이는 공간이 된다는 것은 부모 세대와 현세대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맘껏하우스라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거대한 놀이시설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물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조경이고 놀이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Q (앞 질문에서의) 염두에 뒀던 점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요?

놀이공간을 만드는 건축적 장치는 틈과 프레임입니다.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실내공간만을 넣으면서 최대한 실내로 규정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와는 반대로 외부공간과 사이공간 즉 '틈'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실들은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틈은 이동이 목적이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는 부피가 있는 공간이며, 혹은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시야적으로 음향적으로 통과가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틈을 만들어 준 것은 아이들이 일방적인 방향성을 갖는 움직임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박공 목재 프레임(글루램)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규정짓고 공간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프레임은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안전을 위한 난간 역할을 하며, 각종 놀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놀이기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대부분 공공프로젝트가 겪는 부분일 텐데, 사용자 입장과 관리자 입장이 다르기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발주처 담당 주무관이 의지를 갖고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나름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건축적 지향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저희 사무실 이름이 일상(日常)인 것에서 지향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작업으로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안정감 혹은 즐거움이 되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고자 하는 것이 지향점일 수 있겠습니다.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끔 맘껏숲과 하우스에 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우스에서 어떤 아이들은 물덤벙에서 또 다른 아이들은 나무그늘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하며 놀이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즐거움이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나름 잘 반영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아이들 스스로 채워가면서 더 힘이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2022 건축문화대상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신진건축사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경험도 있어서 건축문화대상과 인연이 깊은 편인데요. 2년 전에는 저희가 특별히 잘해서 라기보다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번에 상을 받고 나서 식구들과 수상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름 괜찮은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려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고 있구나, 그 노력에 대해 조금은 인정받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한옥정책 재창조 종합계획 발표…창의적 한옥 위해 심의기준 개선, 44개 항목 완화 또는 폐지

서울시 "현대적 디자인 한옥도 지원금"…앞으로 10년간 10개 한옥마을 조성

서울시가 현대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월 14일 '서울한옥 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다양한 현대한옥,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건축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용자의 편의, 취향 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한옥 디자인에 대한 접근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한옥 4.0 재창조'는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 지원 확대 ▲일상 속 한옥 : 서울 곳곳 신규 한옥마을 조성 ▲글로벌 한옥 : 우리주거문화(K-리빙) 확산을 포함한 총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 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해 나간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된 한옥도 최소기준(필수항목)만 충족하면 '한옥건축 양식' 항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심의기준도 개편한다. 기존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이를 위해 금년 2월까지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한다. 33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기준은 입면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곳곳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자연 속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한옥마을은 현재 북촌 등 도심 한옥마을과 은평한옥마을 이외 한옥이 부재한 지역으로 확대하되, 자치구 제안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옥 주거문화 세계화도 추진한다. 올해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글로벌라운지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다도·도예 같은 체험 프로그램, 한옥가구, 조명, 공예품 등 인테리어 쇼룸 전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관희 기자

인터뷰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건축사의 창의적 디자인 저해하는 행정절차 개선해 지원할 것"

민간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

최초 설계의도 구현 위해 '통합심의'

2월 9일 서울시는 디자인이 혁신적인 공공건축물이 많이 생기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 건축물에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의 1.2배까지 높여주는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건축사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내용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이라는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 도입 ▲통합 심의 시스템 계획 등이 마련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은 "건축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이번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었다.

Q.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내용의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주요내용과 시사점이 무엇인가요.

서울은 그동안 높이 제한 등 다수의 규제와 공공건축물의 일률적인 표준공사비 적용, 각종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구현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혁신 디자인을 저해했던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이번 혁신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혁신안에는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 지원을 위한 심의는 일원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각종 규제 철폐 방안과 주거디자인 향상을 위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추진, 실행력 담보를 위한 공공·민간부문 시범사업 추진 등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 각종 조례에서는 예외, 단서 조항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적용으로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생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소개한다면?

사업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그에 따른 단서조항, 지침들도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을 이뤘습니다. '연접부 경관 높이기준' 등 경직적 규제를 없애고, 유연하게 디자인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 디자인을 저해하는 과도하고, 복잡한 지침, 전문가와 담당자도 잘 모르는 가이드라인 등 일명 '서랍 속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

Q. 건축물 허가를 받기까지 많게는 40여 개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짧게 소개하자면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은 137개, 추가확인이 필요한 법령도 237개 달하는 등 지나친 규제로 창작의욕 저하와,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과 건축디자인 관리를 위한 심의 절차 간소화·통합 요구가 높은데요.

서울시에서 심의 절차 간소화·일원화는 일부 사업에서 적용 중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경우입니다. 건축심의와 교통심의, 환경심의를 통합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이번 혁신 디자인(설계)의 경우, 최초의 설계자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변경·왜곡 방지를 위한 통합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심의위원회 일원화를 위한 부서 간 협의·조정 중으로, 조례와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Q. 先 디자인, 後 사업계획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설계(디자인)를 먼저 확정하고, 사업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시스템에 변화를 주게 된 목적과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은 사전 예산 편성을 위해 표준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책정된 예산에 맞춰 건축설계(디자인)를 진행해 온 것이죠. 때문에 부득불 디자인과 마감재료 선택 등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혁신 디자인이 필요한 건축물에는 디자인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건축사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고, 의도한 디자인이 심의과정, 공사 중 변경 없이 준공까지 실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창의적인 건축, 도시환경 구성에는 건축사들의 참여와 역량이 관건이 됩니다. 건축사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은?

먼저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 힘써주는 건축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서울시도 이런 유능하고,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상 내실화를 통해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들에게 건축설계 공모 시 우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 4월에는 민간분야 디자인 공모 시행과 향후에도 서울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건축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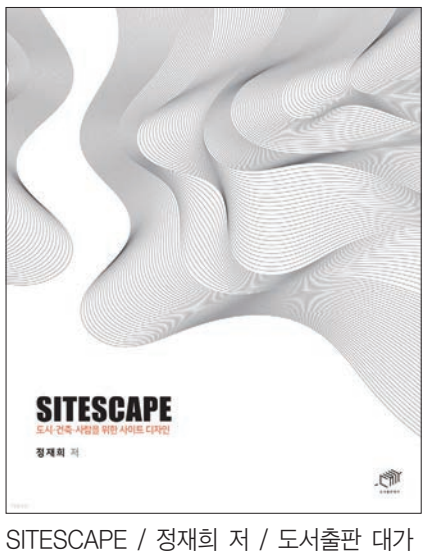
박관희 기자

책꽂이

통합디자인 체계적 방법론 담은 'SITESCAPE', 실용 지침서로 떠올라

도시·건축부터 토목·조경까지 아우르는 통합디자인 도서

다양한 실제 프로젝트 사례 수록



SITESCAPE / 정재희 저 / 도서출판 대가

지난 8월 도서출판 대가에서 출간한 정재희 홍익대 건축공학부 교수(미국 건축사)의 'SITESCAPE(도시·건축·사람을 위한 사이트디자인)'가 대학 또는 실무 전문가들에게 통합디자인의 체계적 실용 지침서로 주목받고 있다.

책은 건축, 단지, 조경계획의 기반을 제공하는 땅의 조성에 관한 기술적, 인문적 양 차원에서의 균형 있는 이해를 모색한다. 인문지리학적 사고에서 출발해 설계단계에서 땅과 사람, 그리고 그 위에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장소와의 관계를 발굴하고 적용해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건축과 대지의 관계성 강조, 자연과 조화된 건축, 경관 속의 건축을 주안점으로 한다. 그러면서 도시, 건축뿐 아니라 토목, 조경까지 아우르는 통합디자인 관점에서의 사이트 디자인을 다루고, 경관과 원지형에 대한 초기 단계부터의 고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책은 기본적으로 도시·건축·사람을 위한 통합적인 디자인을 위해, 개념을 우선 설명하고 방법론을 통해 결과물을 보여주는 프로세스로 서술돼 있다. 1장에서 사이트 디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2장부터는 프로그래밍과 사이트 인벤토리를 통해 도출된 사이트 분석을 기반으로 배치구상과 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실행단계에 걸쳐 사이트 디자인에 기본이 되는 시스템들(토지이용, 동선,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로 구성돼 있다.

6장 사이트 그레이딩에서는 근본적인 면에 집중해 절성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수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의 흐름을 이해하여 배수계획을 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건축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실습문제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통해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선행수업자료 샘플을 보여주고, 땅과의 관계성을 강조한 국내 유명 건축사사무소의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이고 통찰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육혜민 기자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 잔액 1조원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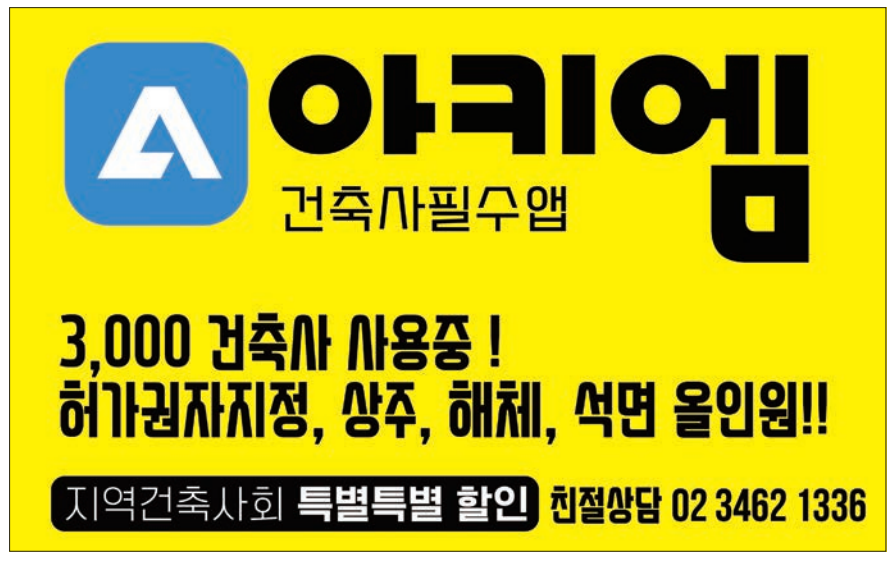
작년 말 대비 2배 이상 늘어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 잔액이 1조 원을 넘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12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부동산 PF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드사를 제외한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이 1조 1,46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4,838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3,638억 원으로 전 업권 중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 잔액은 약 3,000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캐피털 사(2,902억 원), 보험사(1,767억 원), 은행(11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조아라 기자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설계비 현실화…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발표

설계안 왜곡 없도록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초고층 설계기준도 마련…성냥갑 아파트 퇴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례

서울시가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월 9일 서울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 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명소화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네덜란드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건축물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높이나 일조권 같은 건축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두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혁신적인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제한돼 왔다.

이에 시는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등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했다.

우선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자인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민간에서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를 통해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높이·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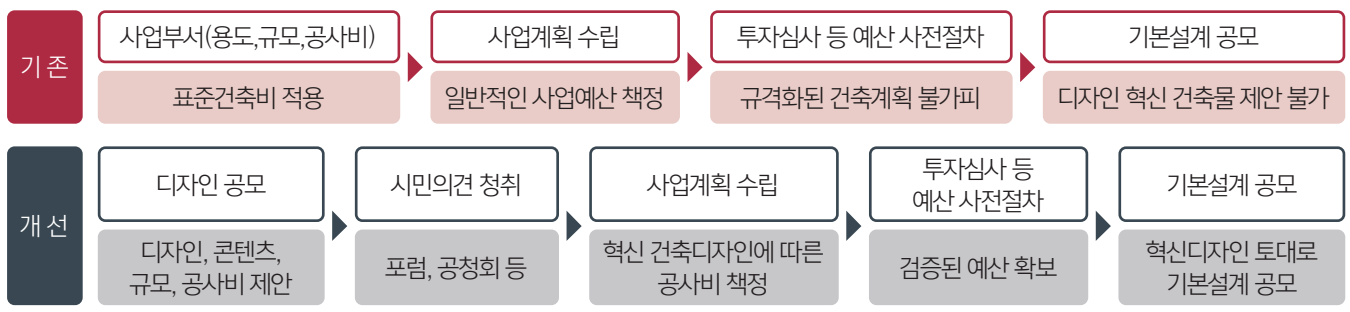
또 시는 혁신적 디자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해 적용하는 특별건축구역을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개편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용도지역 체계에서 탈피한 비욘드 조닝 등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들도 본격 적용한다.

한편 도시·건축 혁신 디자인 유도·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노들섬을 1호 사업지로 선정했다. 노들섬에는 섬 동서 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인 스카이 트레일이 만들어진다. 또 한강과 여의도의 석양을 배경으로 하는 수상 공연장, 한강대교를 따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아트 브릿지도 신설된다.

사진=서울시

박관희 기자

<행정시스템 개선안>



자재 & 테크 프리즘

광스틸, 공기 단축·원가 절감· 안전 재해율 50% 감소…외부마감시스템 '스피드블록 메탈패널'

준불연 품질인정서 획득으로 불소수지코팅 가능

무코킹·비노출형 개스킷으로 누수·결로·화재 확산 방지 성능 우수

삼성전자 최첨단 공장에 적용된 광스틸의 '스피드블록 메탈패널'

스피드블록 메탈패널

건축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준수 사항이나 요구 사양이 높아지면서 기술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외장재다. 정부에서는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관리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외부 마감시스템의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지진 발생에 따른 제품의 내진 성능 확보도 마찬가지다.

종합 건축자재 기업 광스틸이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아 패널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시공·유지보수 편리성을 확보한 '스피드블록 메탈패널'을 선보여 화제다. 특히 이 제품은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 기능이 내장된 패널로 화재 위험을 감소시킨 게 특징이다.

기존 외장 패널은 접합부 코킹처리로 시간 경과(약 5~6년) 시 코킹 훼손,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패널 공사 시에는 하지 설치→방수 시트 부착→패널 설치→백업재 삽입→실리콘→개스킷 삽입 등 복잡한 공정으로 인건비·장비 사용료 절감이 필요했다.

광스틸의 스피드블록 메탈패널은 후공정인 백업제, 실리콘, 개스킷 삽입의 3단계를 없애 시공 시 인원과 장비투입을 줄였다. 공사기간은 20%, 장비사용료도 18%나 줄였다.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진 등 재난에 따른 대응력도 갖췄다.

광스틸 곽인학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획득하고, 누수·결로·오염·단열·불연·내진 부분에 민감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등 사실상 기술력에 대한 검증은 끝난 상태다"며 "일반 건축물을 포함, 상업용 건축물과 연구시설, 물류센터 등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어 제품의 대중화를 맞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지진 피해 입은 튀르키예에 서신 통해 '깊은 위로'

석정훈 본협회장 "건축사 회원 대표해 지진 피해 극복하고 삶의 희망 되찾길"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President Eyüp Muhcu
Chamber of Architects of Turkey
Konur Sokak 4/2 06420
Kızılay-Ankara Turkey

cc: Sibel Bas, deputy secretary general, CAT

11 February 2023

Dear President Eyüp Muhcu,

On behalf of colleagues and member architects of KIRA, I would like to convey my sincerest condolences to the people suffering from the loss caused by the massive earthquake in Türkiye.

We were deeply saddened to hear about the loss and the damage the victims went through due to this natural disaster without any warning. KIRA would like to support the Chamber of Architects of Turkey to help them recover from the disaster as a professional institute.

We pray for the earthquake victims of Türkiye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that the disaster has left behind with assistance and ca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xpect hope to be brought into their life soon.

Sincerely yours,

SEOK, Jung Hoon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IRA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이 에윱 머쿠 터키건축사협회장에게 보낸 서신 원문

대한건축사협회가 지진피해로 큰 슬픔에 잠긴 튀르키예에 위로를 전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2월 11일 에윱 머쿠 터키건축사협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터키건축사협회 회원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신에서 석정훈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 동료들과 건축사 회원들을 대표해 튀르키예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예고 없이 일어난 자연재해로 튀르키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상실과 피해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터키건축사협회의 활동을 지지한다"며 "국제사회 지원과 관심 속에 지진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빠르게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진피해는 2월 6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서북서쪽 37킬로미터 지역에 진도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지진으로 2월 15일 현재 튀르키예에서만 3만5,41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 수는 10만5,500여명, 21만1,000여명이 거주하는 건물 4만7,000채가 무너지거나 기능을 상실했다. 또 여전히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는 많은 희생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100년 내 유럽 최악의 참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주거지를 잃자 다음 달부터 도시재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건과 관련해서는 3만 가구의 주거지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다.

박관희 기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2월 20일까지 신청…작품 접수는 4월 20일 마감

최우수작 당선 시 도시기본계획용역 수행권·총괄계획가 지위 부여

2월 17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현장 설명회 열려

LH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국제공모는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작품 접수는 4월 20일이며, 심사 결과도 4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광명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주거, 일자리,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도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테마, 상징성, 예술성이 가미된 도시기본구상을 수립하려는 목적이다.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약 169억 원 규모의 광명시흥지구 기본계획 용역 수행권과 총괄계획가 지위가 부여된다.

LH는 2월 17일 경기지역본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 참석 신청은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공식 이메일(lh@lh-urbandesign.org)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흥 국제공모 누리집(www.lh-urbandesign.org)을 참고하면 된다. 조아라 기자

VIEW 건축학과 대학생 포럼 '생각지대' 주관 공모전 'Be my Qlient'

건축학과 학생들의 자발적 운영 포럼 '생각지대'가 주관한 첫 공모전, 'Be my Qlient' 시상식 열려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을 통해 진행한 방식은 기존 공모전과의 차별성 보여

작품발표

지난 2월 18일 포럼 '생각지대'에서 주관한 공모전 'Be my Qlient' 시상식이 개최됐다. 'Be my Qlient'는 여러 조건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 공모전과 달리, 참가자들이 실존하는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프로세스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번 공모전의 클라이언트는 은퇴한 원로 음악가로, 70대를 맞이한 본인의 생의 마지막 집인 '죽음의 집'이라는 주제를 설정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약 7시간(11:00~18:00)에 걸쳐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의 시작과 함께 축사를 맡은 한종률 건축사(㈜한종률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고민한다면 앞으로의 설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건축은 팀워크이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춰 역할을 분담하는 것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클라이언트도 "순수하고 열정에 빠진 젊은 건축학도들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 가슴 뜨거워지고 울컥했던 시간들이 많았다"라며, "70대 되어 준비하는 죽음의 집에 대해 젊은 학생들과 대화해 보고 싶었다"라고 축사를 더했다.

2부는 공모전에 참가한 총 165팀 중 본선 진출한 8팀의 작품 발표로 진행됐다. 작품 발표는 후보자, 심사위원, 참관자가 함께 시청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담은 다큐멘터리 비디오와 작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됐다. 3부 최종 발표는 현장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대상 수상은 후보자 진태우 학생(명지대학교)의 '70대 음악가 A씨의 몽타주' 작품이 선정됐다. 진태우 학생은 '집이란 거주자를 잘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으로서,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집은 걸어온 인생을 추억하는 것을 넘어 나의 의미를 찾는 과정인 몽타주'라고 죽음의 집을 해석해 작품을 풀어냈다. 시상 발표 후에는 이번 공모전의 중심이었던 클라이언트의 소감을 끝으로 식이 마무리됐다.

> 공모 참가자들이 실존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 방안 도출하는 이색 공모전 프로세스에서 '소통 중요성' 직접 체험
>
> 대상에 진태우 학생(명지대학교)의 '70대 음악가 A 씨의 몽타주' 작품 선정
>
> 포럼 '생각지대', 미래 건축계와 대학 사회에 "신선한 바람 불어넣고 싶다"

한편, '생각지대'는 5개의 서울권 건축대학에 재학 중인 12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포럼이다. 전국의 건축학과 학생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기에 건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한다. 특히, 타인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생각의 '사각지대'를 발견해 자신의 건축관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을 목표한다. 현재 박민수 학생(연세대학교)이 단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번 공모전을 기획한 포럼 '생각지대'의 박민수 단장 그리고 대상을 수상한 진태우 학생과의 일문일답이다. 남두진 기자

박민수 단장(연세대학교)과의 일문일답

박민수 단장

Q. 이번 공모전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요

포럼 '생각지대'의 기획들은 단원들이 각자의 학교설계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학기 중 커뮤니티센터를 설계하기 위해 '어떤 공간을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재하는 사람'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답변가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설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기획하게 됐습니다.

Q. 학생 신분으로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요.

이번 공모전은 포럼 '생각지대'의 공식적인 첫 기획이었기에 준비를 위해서 현직에 있는 선배들에게는 취지와 의지를 담은 활동 계획 자료 밖에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영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포럼 '생각지대'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다보니 홍보하는 방법이나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 등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홍보의 타겟이 학생으로 한정돼 있던 것도 아쉬웠는데, 다음 기획 때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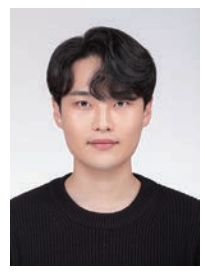
Q. 포럼 '생각지대'의 향후 계획

지금도 건축과 관련된 포럼은 다양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경험과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관심사와 갈망을 잘 파악해 현직 선배들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루려고 합니다.

Q. 현직에 있는 건축사 선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혹은 기억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우선 건축에 대한 탐구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장벽을 넘어 서로가 주체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중한 격려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초심' 보다는 '에너지'를 잃지 않겠다는 표현이 저희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열린 생각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다채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미래 건축계와 대학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단체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진태우 학생(명지대학교)과의 일문일답


진태우 학생

Q.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특별히 중점 둔 포인트가 있었는지요

먼저 학교에서 배운 언어와 클라이언트의 언어가 너무 달랐는데, 이는 전문과 비전문의 영역 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다루는 것은 제가 더 익숙하다는 믿음이 있었고, 거기서 전문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클라이언트의 말을 건축적으로 직역이 아닌 의역을 하기 위해 추상적인 답변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가며 미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Q. 본인은 공모전의 주제인 '죽음의 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요

마냥 무겁게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전통사회에서 집은 일터이자 쉼터, 산부인과, 장례식장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클라이언트가 지내온 삶에 집중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진 공간적 기억을 반영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반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Q.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어려웠던 점은

설계보다는 발표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교수라는 전문가가 아닌 클라이언트라는 비전문가에게 어떻게 하면 친숙한 언어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에 힌트가 된 클라이언트의 말과 이를 해석한 투시도 장면들을 병치시키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심사위원들도 그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Q. 향후 계획은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이론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건축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국 건축의 담론적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디자인 소셜 클럽과 교내 동아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학생이라는 신분이기에 충분히 엉뚱하고 어설프려고 합니다. (웃음)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률 파격상향…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

'용적률·용도지역·심의' 규제 완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속도 높여

총괄 사업 관리자 도입…시장·군수 등이 구역별로 법인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이며, 면적 기준도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인 100만m2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이다. 특별 정비구역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 정비구역은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며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안전진단을 면제시켜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의 경우 종 상향 수준이며, 용도 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특별 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 사업 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특별 정비구역 지정 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의 관리·지원하는 제도로, 시장·군수 등이 구역별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수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만큼 조합 등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된다. 조아라 기자

한국 주택사 연구 족적 남긴 박철수 서울시립대 교수 별세

향년 64세, 저서로 '한국주택 유전자'와 '아파트의 문화사' 등 약 50여 편 다수

故 박철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사진=서울시립대

'한국주택 유전자 1·2' 등 50편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한국 주거문화 인식 향상과 주택연구에 매진해 온 박철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2월 14일 오후 향년 6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최근 박철수 교수는 제5기·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서울 출생인 고인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근무하다 모교에 교수로 부임해 제자들을 가르쳐왔다.

대학에서 주거론과 주거문화를 연구해 온 그는 2021년 한국 주택사를 정리한 '한국주택 유전자'를 집필해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공로로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문화진흥부문' 본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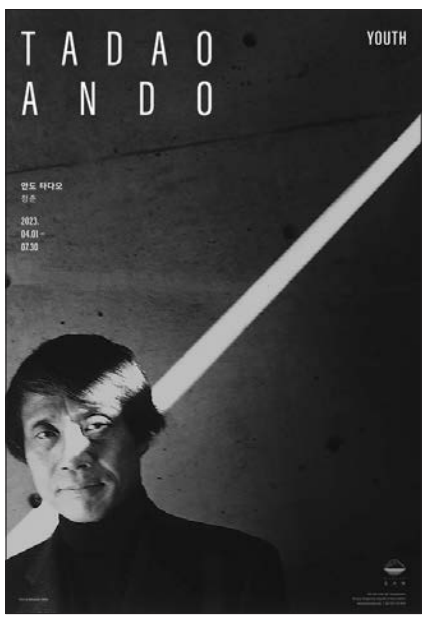
책에서는 아파트가 대표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기 전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한국전쟁 시와 경제개발기에 한국인들은 어떤 형태에서 주거시설에서 살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당시의 주거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진단한다.

이 밖에 주요 저서로 '아파트의 문화사'와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근현대 서울의 집',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등 한국 주택사·건축 관련 책 50여 권을 펴냈다.

대한건축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고인은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2020년부터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5월부터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박관희 기자

안도 다다오 첫 개인전, 4월부터 원주 뮤지엄 산에서 열려



안도 다다오 개인전이 4월 1일부터 원주 뮤지엄 산에서 진행된다.

뮤지엄 산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 '안도 다다오-청춘'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안도 다다오의 개인전이다. 전시가 열리는 뮤지엄 산은 안도 다다오가 직접 설계를 맡은 공간이다.

이번 전시는 안도 다다오의 도전적인 건축 세계를 조명한다. 250여 점의 원본 드로잉과 스케치, 영상, 모형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특히 1969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전반기 작품을 볼 수 있다.

안도 다다오는 자연과 건축물의 유기적 결합한 건축을 통해 현대 건축사에서 중요한 건축사로 손꼽히고 있다. 프로 복싱선수 경력을 가진 그는 전문 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고 일본 1급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안도 다다오-청춘'은 2017년 도쿄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중국 상하이 베이징, 대만에 이은 일곱 번째 국제 순회전이다.

조아라 기자

흙막이(굴토공사) 설계·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 내부확장공법
<특허공법-흙막이(C.I.P)가 건축물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 공법>

(주)양광엔지니어링·(주)선샤인이엔씨
토질 및 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02-2293-6800,F.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잠실주공5단지 설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해야"
法, 1등 당선자 (주)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에 일부 승소 판결

2018년 재건축 조합, '잠실대첩' 잠실주공5단지
국제공모 1위에도 2등 당선자와 계약 진행
2021년 조성룡도시건축 컨소시엄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해 승리

(주)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이 잠실 주공 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3부는 지난 2월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조성룡도시건축 컨소시엄'은 2018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국제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됐다. 공동주택 설계 경험이 많은 조성룡 건축사는 바람과 일조,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미래 가치를 '잠실대첩'에 담았다. 하지만 조합 측은 서울시의 심의를 이유로 계약을 미뤘고, 컨소시엄 측은 2021년 7월 당선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은 조합 측이 2022년 5월 공모전 2등 당선자와 설계 계약을 하면서부터 심화됐다.

잠실 주공 5단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중 35층 제한을 깨고 50층 이상을 승인받았다. 민간 재건축에 공공이 개입하는 이례적인 경우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도시의 미래적 가치를 판단해 종 상향을 인정했다. 다만 준 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 거주 지역을 구분하는 도로 신설, 일부 공공시설 확보, 층수에 대한 방향 제시 등 소극적인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잠실 주공 5단지는 재건축 정비 계획안을 마련한 지 약 7년 만인 2022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조아라 기자

'임대형기숙사' 개념 신설 '건축법 시행령' 개정·공포, 2월 14일 시행
기숙사형 공유주거 공급 목적, 일반인 대상 '기숙사 임대업' 가능해져

공유주택 사업 위한 건축규제 완화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는 제한

▶ 신구조문 대비표

종전	개정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법상 기숙사의 하위용도로 '임대형기숙사'가 건축용도에 추가되고, 개별 실(室) 단위 구분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2월 14일 개정·공포,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기숙사는 기존에는 학교·공장주가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형기숙사'가 신설돼 임대사업자가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기숙사는 운영자의 자격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의 형태로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영호 기자

SH, 준공 30년 된 노후 아파트 단지 34개 단지 재정비…용적률 상향 적용

강남구·마포구·송파구 등 8개 지역, 4만 가구 대상
용적률 상향·35층 이상 초고층 주택 공급도 고려 중

서울 주택공사(이하 SH)가 준공 30년이 되는 노후 아파트 단지 4만 가구를 재정비한다.

SH는 지난 2월 15일 공사 소유 공공 주택 13만 1,160호의 자치구별 연도별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 내역을 상세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SH가 공개한 자산은 ▲아파트형 임대주택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이다. 공개 내역에 따르면 공사 소유 공공 주택 13만 1,160호의 취득가액은 약 21조 9,625억이며, 장부가액은 약 18조 4,798억 원, 공시가격은 약 46조 원이다.

SH는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하계 5단지와 상계마들 외에도 내용연수 30년이 도래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34개 단지, 4만 가구를 재정비한다고 언급했다. 용적률 상향, 품질 강화 등을 적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강남구(3개 단지), 강서구(8개 단지), 노원구(10개 단지), 마포구(2개 단지), 송파구(2개 단지) 양천구(4개 단지), 영등포구(1개 단지), 중랑구(4개 단지) 등이다. 내용연수 30년이 도래하는 34개 단지의 취득가액은 약 2조 362억 원, 장부가액은 1조 2,419억 원, 공시가격은 8조 1,184억 원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자산 내역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금액이다.

조아라 기자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3월 22일까지 제26기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오는 3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16주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GAEC)' 제26기 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은 글로벌 시장 환경의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미래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리더십부터 자산관리, 한옥의 의미, 상권과 산업시설, 고객서비스 전략부터 이미지메이킹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국가전문자격자, 기업체 CEO 또는 임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을 희망하는 이라면 3월 22일까지 입학지원 서류를 신청폼(http://naver.me/5fj60cE9)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식비, 교재비, 견학·워크숍비를 포함해 총 150만 원이며, 모집인원은 4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건축사회 기획홍보팀(02-587-5753, 7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Hope with HUG 프로젝트 제55호 리모델링 완료

시공 전·후 모습

부산광역시건축사회의 설계재능 기부로 진행된 건축환경 개선사업 'Hope with HUG 프로젝트'의 제55호 사업지로 선정된 경로당이 새단장을 마쳤다.

HOPE(House Of People's Empowerment) with HUG는 '서민주거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의 집'이라는 의미다. HOPE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건축환경 개선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부산건축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건축사회는 48호부터 자체적으로 설계재능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55호 사업에는 김선종 홍보봉사위원장을 비롯한 봉사위원들이 재능기부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제55호 사업 대상지는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경로당'으로, 1982년에 건축된 노후 경로당이다. 벽체 2면이 노후된 홑겹의 창호로 되어 있어 단열이 거의 되지 않고 실내 단차가 많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하지만, 자체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HUG와 동원개발이 공사비를 후원하고 부산시건축사회가 설계 재능을 기부해 단열을 위한 벽체를 세우고 단차를 모두 없애는 등 보수 공사를 마쳤다.

12월 21일 진행된 은마아파트 경로당 준공식에는 부산건축사회 강미숙 부회장을 비롯해 사업주최, 후원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부산시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산·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원, 건축문화발전 이바지 공로 인정받아 표창장 수상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2022 건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각 부산·울산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2022년 10~11월 사이 개최된 건축 문화제는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의 의미를 부각하고, 실질적인 건축문화를 실현하고자 매해 각 지역에서 개최된다. 부산·울산 지역에서 개최되는 건축제의 경우, 시에서 주최·후원하는 행사인 만큼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한 것이다.

부산시건축사회에서는 김학수(대승종합건축사사무소)·최홍석(가감승제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각각 2022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과 '건축문화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울산시건축사회에서는 김훈(주.티아 건축사사무소)·서연재(모아 건축사사무소)·이상태(건축사사무소 상상)·엄선희(모노 건축사사무소)·최성길(건축사사무소 단)·한갑용(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업무유공자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부산시건축사회 최홍석 건축사는 "맡은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표창장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변치않는 마음으로 협회와 건축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2023년도 사업계획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원효 울산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안) ▲2023년 수지 예산 ▲주요 현안사항 ▲회원업무 지원사항 등이 다뤄졌으며, 이어 회원 상호교류와 협력방안, 회원 업역 확대방안, 대관업무에 대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원효 회장은 "2023년 사업계획수립을 통하여 회원지원과 업무개선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상반기 시·군·구 건축행정 관계자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2월 8일 울산건축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건축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관내 건축행정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시·군·구 건축업무담당자 11명과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김원효 회장을 비롯한 임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중구)개발행위 관련서류 확인 철저 및 직통계단 2개소 확보 기준 협의 ▲(남구)부설주차장 설치대수 비율 조정 시행 ▲(동구)주거용 재난 위험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 ▲(울주군)허가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공사자재 납품 서류 관리 등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울산시의 협조사항 안내 순서로 이어졌다.

한편, 울산시건축사회에서는 ▲건축사 민원상담 운영 및 환경 개선 요청 ▲리모델링 설계 용역 대가기준 1.5배 적용 요청 ▲대지조성 등 토목공사 시 감리자 배치 조례개정 건의 ▲건축 인·허가건 협의부서 업무 진행 문제점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특히 건축 인·허가 협의 진행시 발생한 보완사항과 더불어 건축 분야의 보완처리가 한 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원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건축행정 현안들이 있지만 건축사와 관내 건축업무부서가 소통하고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울산시의 건축 행정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밝혔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설계공모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건축사회가 경상남도와 지역별 행정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설계공모의 문제점을 파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4일 경남도청 본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경남 도내 건축사 30명과 경상남도 총괄건축가, 건축주택과장과 공공건축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건축사회 오공환 회장과 간담회 좌장을 맡은 허정도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는 "설계공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없어 지금껏 공론화가 쉽지 않았다"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오늘 나오는 의견과 토론을 바탕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가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경남건축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초 자료로 삼아 5가지 주제로 나눠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심사방법의 문제점 ▲심사위원 선정 ▲부정행위 차단 ▲발주기관의 공모관리 ▲공모 후 사후관리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허정도 총괄건축가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건축문화와 색깔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마련해 보겠다"며 "오늘 의견을 바탕으로 경상남도와 경남건축사회간 TF팀을 구성해 결과를 도출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안동지역건축사회, 희망 2023 나눔 이웃돕기 성금전달

경상북도건축사회 안동지역건축사회는 1월 18일 안동시청을 방문해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남상철 안동지역건축사회장과 함께 자리한 임원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어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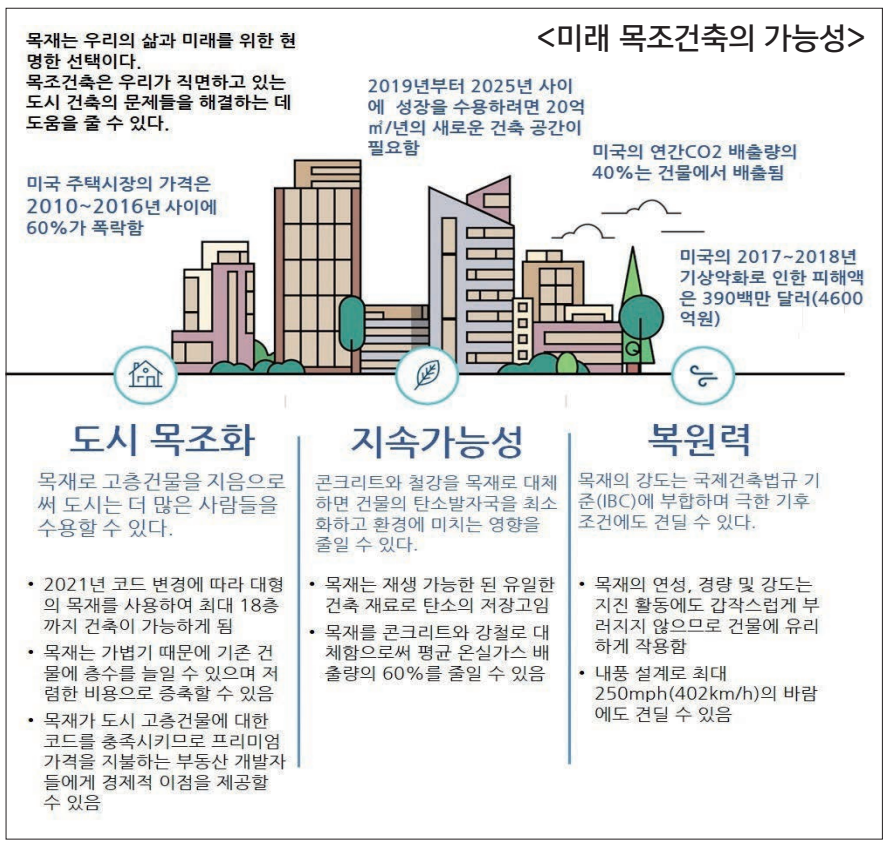
아톰월드 주차시스템
atomworld.modoo.at
국토교통부 주차대수 인정
아톰월드㈜와 유사상호 사용 또는 유사형태를 제작하는 업체는 당사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NAVER 아톰주차
아톰월드㈜는 피트형 주차장치 발명특허(제0917225호, 제1884830호)의 독점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특허 개발자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Tel. 042) 525 - 2644

목조건축 산책

이동흡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건축물의 탄소배출량 감소 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숲과 도시를 이어주는 목조건축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산림 국가로서 이제 목재 이용에 적합한 주벌기(주로 50년생)를 넘어 이용할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산림의 나이 증가로 2008년 이후 연간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산림자원은 풍부해도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흡수원으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다. 제구실을 찾자면 나이 든 목재는 벌채하고 그 땅에 새 묘목으로 갈아 심어야 이산화탄소 흡수력도 증가한다. 또한 목재로 이용하려면 용도에 적합한 타이밍에 벌채하여 활용해야 한다. 그 극복 사례로 대표적인 곳이 일본이다. 국산 목재를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의 내장재로 사용하면서 목재 자급률을 41.8%(2020년 기준)까지 끌어 올리며 고부가가치 모델로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순환 경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목재가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목재에 의한 탄소고정이다. 목재 내에 고정된 탄소는 태우지 않는 한 대기 중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탄소를 목재 내에 계속 저장할 수 있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 목재를 활용함으로써 콘크리트나 철 등의 재료에 비해 제조 및 가공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탄소를 건물 내에 고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국산 목재제품(HWP)은 탄소저장고로서 감축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1%를 산림 부문에서 상쇄하고, 그중 13%는 목재제품으로 충당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매스팀버를 이용한 고층 목조건축물이 도시마다 확산일로에 있다. 또 공공건축물을 목조로 축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탄소저장 기능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발생량과 흡수량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목재 활용에 의한 탄소중립'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과 산림의 다면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일본 닛케이BP 종합연구소의 목재 비즈니스 최전선[1]에서는 단기적인 수요증가보다 지속가능한 이익이 환원되는 구조가 있어야 산림정비나 투자가 진행되어야 목재 수급 밸런스의 최적화, 생산성과 수율의 향상, 원목 가치의 최대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목재 자급률이 낮으면 이러한 계획도 모두 꽝이다. 바로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6% 내외로 낮은 자급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4번째로 수입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는 오명도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외국산 목재에 의존하면 국내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우리 산으로부터 경제 순환도 끊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과 2050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고 국내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숲과 도시의 연관구조를 확립하고 산으로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리는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일터, 삶터, 쉼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숲과 도시를 이어주는 목조건축으로, 경제+기후위기+복지의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기지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 日経BP総合研究所社会インフララボ：木材ビジネス最前線, 2021년 11월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애와 효행의 산실, 안동 체화정(安東 棣華亭)

체화정 전경

보물이 된 정자

안동 체화정(安東 棣華亭)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조선시대의 정자 건축물이다. 진사(進士) 이민적(李敏迪:1663-1744)이 1761년 효종(孝宗) 때 지었으며, 1971년 중수되었다. 형 이민정과 함께 살면서 형제의 우의를 다진 장소이다. 체화정이라는 당호(堂號)와 기(記)는 하지(下枝) 이상진(李象辰, 1710~1774)이 지었으며, '체화(□華)'란 형제간의 화목과 우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시경(詩經)' 소아(小雅)편 '상체지화(常□之華)'에서 그 의미를 따왔다.

체화정이란 현판은 사도세자의 스승이었던 유정원의 친필이며 뒤에 김홍도가 이민적 집안의 남다른 형제애를 기려 쓴 것이라 전해지는 담락재라는 조그만 현판이 하나 더 있는데 평화롭고 화락하게 즐기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건물형태를 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의 중층(重層) 팔작지붕집이다. 일반적으로 방 앞쪽에 툇간을 두는 경우 칸살을 방보다 작은 반 칸 규모로 잡는 것이 보통인데, 체화정은 동일 주간으로 잡아 전면에 3칸 마루를 들이고, 후편 어간에 온돌방 1칸을 두면서 좌우 툇간에 마루방을 들인 독특한 간잡이법(건축에서 평면계획으로 방이 배열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정자 앞의 연지에는 방장(方丈)·봉래(蓬萊)·영주(瀛州)의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섬을 둔 인공의 큰 연못이 정자와 잘 어울린다.

체화정의 연지(蓮池)는 별서정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상인 신선사상과 음양론, 천원지방설 등의 영향을 받아 방형(方形)의 연지와 세 개의 원형(圓形) 섬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별서정원에서 나타나는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 또한 체화정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정자로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우수한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자의 전면에 연못과 세 개의 인공 섬을 꾸미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조성하여 조경사적인 가치도 높다.

1985년 10월 15일 경상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00호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2051호로 지정되었다.

우애와 효행의 산실

안동에서 풍산 시내로 들어서게 되면 만나는 동네인 상리리에 뒤로는 산을 등지고 있고 앞으로는 풍산으로 흐르는 낙동강 지류가 흐르고 있는 곳에 안동 채화정이 있다. 정자 앞으로는 인공 연못을 파 정자에서 보는 전경과 연못 건너편에서 보는 정자의 모습은 참으로 멋스럽게 보인다. 정자 앞 연못의 이름은 삼층도지라고 하며 3개의 작은 섬들을 만들어 두었으며 오른쪽으로는 회류하는 물길을 내어 놓았다. 정자의 뒤로는 병풍을 닮은 산이 정자를 감싸 안은 듯 하다.

아직 보물로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체화정은 배롱나무꽃이 피는 7월경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인근 병산서원과 함께 그 시기에 제법 많은 이가 찾는다.

체화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전면 가운데 칸에 설치된 문이다. 반 칸 너비의 들어열개 격자문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그 양쪽 변을 4등분 했을 때 한 등분 너비의 좁은 여닫이문이 달려 있는데, 평상시에 방을 드나들 때 이 문을 사용한다. 날씨가 더우면 양쪽 여닫이문을 일단 들어열개 문에 포갠 후 전체를 들어 올려 고정하면 실내외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된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문 속의 문이다. 중앙의 고정된 문 가운데를 뚫어 작은 이분합 띠살문을 달고, 양쪽 문에는 육각의 작은 빗살창을 냈다. 그리고 창호지를 바르되, 중앙의 작은 띠살문과 양쪽 빗살창은 안쪽에서, 나머지 부분은 밖에서 창호지를 발라 띠살문과 빗살창이 뚜렷이 대비되게 하였다. 밖에서 보면 흰 창호지 바탕과 문살의 산뜻하고 아름다운 조화가 매력적인데, 이것은 한국인의 미감과 생활의 지혜가 낳은 걸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자 뒤쪽으로는 숲이 우거진 나지막한 산이 가려져 있고, 정자 앞에는 수초와 수변 식물이 무성한 연못이 넓게 펼쳐져 있다.

체화정의 이민적·이민정 형제의 우애는 상체꽃처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였기에 아내와 자식들도 본받아 화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면 부모에게 효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체화정은 건립 당시의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예안이씨 일가의 효성과 우애와 충의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체화정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23-10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건축과 삶

강영찬 건축사
바른건축사사무소
〈충청남도건축사회〉

교수신문은 2022년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뽑았다. 논어 '위령공 편'에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는 뜻으로 처음 등장한 사자성어다.

잘못을 하면 고쳐야 한다. 국제적인 이슈로 어수선한 현재의 상황을 보고 힘들어져 가는 사회를 탓하기보다는 우선 나부터 고쳐가야 할 것이다. 언제나 모든 일의 시작은 '나'이니까.

토끼해인 계묘년답게 토끼의 지혜를 빌려보자.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 했던가. 꾀 많은 토끼는 훗날을 위해 굴을 3개씩 파 놓는다는 뜻이다. 건축사인 우리들도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훗날을 위해 단단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사무실부터 새롭게 정리하며 개업할 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보자. 청소하고,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화분을 놓고, 책상 위치만 바꾸어도 예전의 그 긴장감과 설레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건축 관련 법규를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자.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드론이나 그래픽 TOOL을 포함하여 BIM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익혀 보자. 더 이상 남의 손을 빌리거나 답답해 할 때가 아니다. 언제든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자는 것이다. 그러한 자신감이 생긴다면 제안공모처럼 간단한 제출물을 원하는 방식도 있으니 공모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다. 그동안 업무에 지쳐 가족에게 소홀했었다면 지금이 그 미안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했던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커지게 느껴진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투자 하자. 힘겨웠던 시간을 잘 버티어 왔고, 앞으로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할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놓자. 땀을 흘리는 육체적인 운동과 더불어 다양한 독서를 통한 마음의 운동도 겸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굴을 열심히 파놓다 보면 코로나19가 지나간 것처럼 지금의 힘겨운 터널도 끝이 보일 것이다. 그때 지금의 준비된 초심(初心)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그 당당함은 차고 넘칠 것이다. 그때를 위해 오늘의 나부터 바꾸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로 보는 세상

제목 없는 시(하이쿠)

- 마쓰오 바쇼

파 하얗게
씻어서 세워 놓은
추위여

- 마쓰오 바쇼 '바쇼 하이쿠 선집'/ 류시화 옮김/ 열림원/ 2013

하이쿠는 지금까지 알려진 운문 문학 중에서 가장 짧은 형식이라고 알려졌다. 5-7-5 열 일곱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는 계절을 나타내는 키고(계어;季語)와 호흡을 끊어서 여운을 주거나 시상을 전환하기 위한 키레지(절자;切字)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형식은 15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전신으로는 '와카'가 있었다. 와카는 하이쿠의 5-7-5 음절의 뒤에 7-7 음절이 더해진 형식이었다. 그러다가 와카가 놀이 형식으로 변형되며 '렌가'가 만들어졌는데, 한 사람이 5-7-5를 매기면 뒤에 사람이 7-7로 답하는 식이었다. 하이쿠는 이 렌가에서 7-7을 버리며 성립했다. 마쓰오 바쇼는 16세기에 하이쿠를 완성한 시인이다. 그는 1644년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나 25살에 주군이 죽자 갈 곳이 없어져 무사를 그만두고 시인의 길로 들어선다. 그는 무사가 도장 깨기하듯 일본 전국을 방황하며 하이쿠 형식을 완성했다. "방랑에 병들어/ 꿈은 시든 벌판을/ 헤매고 돈다" 바쇼가 죽기 사흘 전에 쓴 하이쿠다.

〈함성호·시인〉

| 발 언 대 |

최형래 건축사
동희 건축사사무소
〈충청남도건축사회〉

꿈과 현실

대학 입학 시절 선배들이 '넌 왜 건축과에 왔냐?'라고 열에 아홉은 의례적으로 물어봤다. 그 당시 필자는 '그냥 점수 맞춰서요.' '아버지께서 건축사라...'라고 별 의미 없는 답변을 했었다.

건축에 입문한지 15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는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난 왜 건축을 하고 건축사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는 별 의미 없이 넘길 수 없는 질문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고, 답을 찾고 헤쳐 나가야만 나와 가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질문이 됐다.

사무소를 개설한지 반년 남짓. 호기롭게 시작했고, 간간이 입찰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사무실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답을 건축사현장에서 찾기도 했다. 첫 항목에서 '건축사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라고 기술돼 있다. 건축사라면 기술적인 부분은 기본이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것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건축사로서 좋은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꿈과는 다르게 건축설계의 현실은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하기에 많지 않은 설계비임에도 그 설계비마저 아까워하고, 이런 상황을 파고들어 일을 받아오는 자격대여 사무소도 있고, 일부 건축사사무소는 스스로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건축주가 제대로 된 설계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로 서야 한다는 점이다. 더 좋은 공간과 미적인 건축물을 생각하는 등 많은 고민이 뒤따르는 건축설계임에도 건축주들은 눈앞의 비용에만 매몰되어 있고, 설계 기간마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둘째로 건축사들 역시 적은 설계비로 소수의 프로젝트만 진행한다면 사무실 운영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허가 수준의 도면만으로 작업을 종료 해버리는 경우다. 셋째로 위와 같은 결과물에서 공사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적으니 시공업체에서 시공 중 임의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져 설계 의도와는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은 예술품이 아닌 부동산 가치만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아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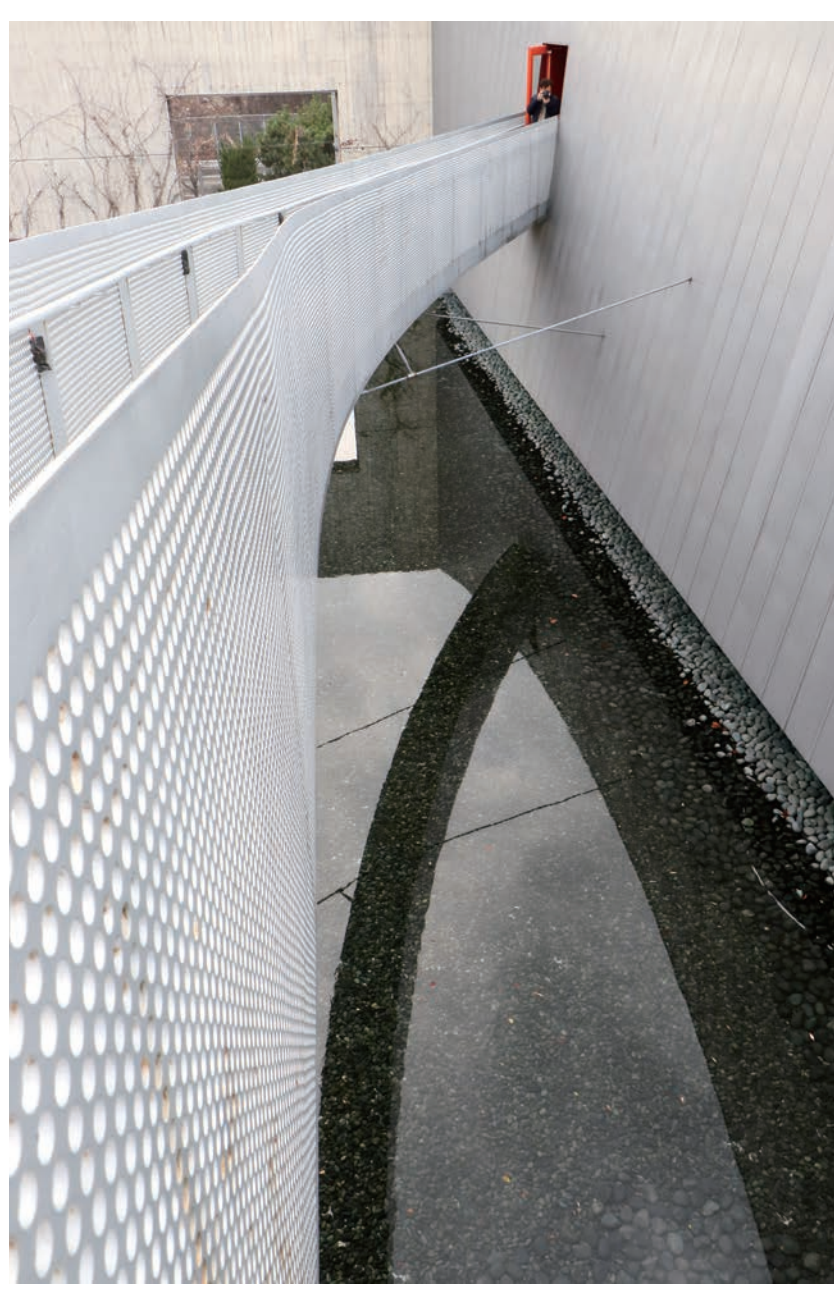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민간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렵게 대가기준이 만들어지더라도 건축사들 모두가 이를 지키고 박리다매를 하는 자격대여 사무소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가해져야 그 기준에 의미가 생길 것이다. 그래야 건축사들이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고민을 하여 좋은 공간,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

철선을 모아 그 한계를 넘어

건축의 구조를 형성하는 재료로 대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와이어는 얇은 철선을 모아 무게의 한계를 극복하는 굵은 와이어로 만들어져 건축을 더욱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넓고 무거운 지붕을 와이어로 가벼운 건축물의 형태로 들어 올리기도 하고, 대형 스팬의 교량을 지탱하여 아름다운 현수교도 만듭니다. 건축, 토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사용하는 와이어는 1963년 부산 수영구의 공장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은 이 공장의 이전으로 이곳에 복합 문화공간과 와이어전시관으로 재탄생하여 있습니다. 여기 와이어전시관에 와서 한계를 넘는 선을 느껴 봅니다.



정익재 건축사 · KN 건축사사무소

건축만평

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14,2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홍성용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6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다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마음 한뜻 대한민국 건축사

2월 3일 건축사의 날

자성! 회복! 도약!

대한건축사협회